

콘텐츠산업 수출액 첫 60억 달러 돌파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게임·캐릭터 순 매출액 105조 5107억 원...전년 대비 5% 증가 광고·캐릭터 등 최근 5년간 2만개 일자리 창출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액이 사상 첫 60억달러를 돌파했다. 2016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05조51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대내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지난 5년간(12~16) 연평균 4.9%씩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는 최근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2016년 기준)를 발표했다. 연평균 4.9%의 매출액 증가는 2016년도 국내 전 산업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2.2%)과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5%)에 비해 높은 수치로, 타 산업에 비해 콘텐츠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콘텐츠 매출액은 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으며 애니메이션(10.9%), 캐릭터(9.8%) 부문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7659억 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17조3311억 원의 방송이 뒤를 이었으며 광고(15조 1,897억 원), 지식정보(13조 4,623억 원), 캐릭터(11조 66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0억806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 산업 수출액이 전

년 대비 5.9% 감소한 것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수치다. 수출액은 출판을 제외한 전 산업 부문에서 증가했다. 특히 영화(49.4%), 방송(28.3%), 음악(16.2%), 광고(16.2%) 부문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16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11억411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8억6696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32억7735만 달러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6억1284만 달러를 기록한 캐릭터였으며 지식정보(5억 6641만 달러), 음악(4억4257만 달러), 방송(4억 1121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영향으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12~16) 연평균 6.8%씩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2016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63만1457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약 9500개, 최근 5

년간 약 2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한 것이다. 종사자 수는 출판, 게임, 영화 등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광고(22.8%), 캐릭터(10.6%), 애니메이션(8.8%) 등에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9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출판)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계됐다. 한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출판)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동남아 판로확대 수출촉진회 개최

109건 상담 1622만불 실적

한국전력(사장 김중갑)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 및 KOTRA(사장 권병오)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 10개사와 동남아시아 지역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사진)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촉진회는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들과 진출해 해당 국가의 현지 바이어 및 전력회사 구매자와 직접 제품 홍보와 수출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한전 주도형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다. 수출촉진회 참여 중소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수출촉진회 기간 동안 총 109건의 상담을 통해 1622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 영화산업전기서는 필리핀 4개 현지바

이어와 구체적인 수출협상을 진행하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전은 또 이번 수출촉진회 기간 동안 전력 신기술 세미나를 열고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SCADA, DAS 등 전력 신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한편,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기술과 제품을 홍보했다. 특히, 이번 수출촉진회에서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홍보관을 설치해 전력 신기술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브랜드 역량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콘텐츠 개발·전문 인재 양성 융합형 프로젝트 창작자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 15일까지

게임과 예술의 만남으로 혁신적인 콘텐츠를 탄생시킬 융합형 협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도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엔씨문화재단(이사장 윤승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센터장 장재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형 협업 프로젝트 '놀이, 이토록 창의로운 Imagine, Play'에 참가할 창작자를 오는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게임과 여러 문화예술 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과 전문 인력을 발굴 및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게임을 만들고 싶은 ▲게임 개발·기획자와 게임 요소를 작품에 활용하고 싶은 ▲미디어아티스트 ▲그래픽디자이너 ▲뮤지션 ▲공연예술 창작자 ▲웹툰·시나리오 작가 등 게임 및 문화예술 분야 창작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놀이, 이토록 창의로운 Imagine, Play' 협업 프로젝트에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총 5개 팀이 참여, 협업 팀별로 최대 1,000만 원의 수행지원금이 지원된다. 6월부터 9월까지 총 12주 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문가 멘토링을 비롯해 워크숍, 팀 프로젝트 수행, 데모데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문의 061-900-839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NH농협은행과 함께 신규 핀테크 서비스 발굴을 위한 'KISA-NH 핀테크x블록체인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신규 핀테크 서비스 발굴 널앤서팀·FintechGo팀 최우수상

인터넷진흥원·NH농협은행 '핀테크x블록체인 해커톤' 대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NH농협은행과 함께 신규 핀테크 서비스 발굴을 위한 'KISA-NH 핀테크x블록체인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커톤(Hackat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해 시제품 단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진대회를 뜻한다. 이번 대회는 '신규 핀테크 서비스 개발

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전심사를 거친 총 26개 팀 105명이 최종 대회에 참가해 IoT, 빅데이터 등과 결합한 다양한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널앤서팀'(블록체인 기반 유언증명 및 유산 분배관리 서비스)과 'FintechGo팀'(인공지능 기반 소상공인 대출금리 산출 서비스)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안성도 측면에서 주목 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날 수상팀들에게는 총 상금 2000만

원이 주어졌으며 이외 KISA 핀테크 기술 지원센터·NH핀테크 혁신센터 입주 기회와 사업화 지원 등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유환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은 "핀테크 기술은 금융 외에도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융합 신기술"이라며 "앞으로도 KISA는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DN, 중기와 연구개발 미래먹거리 찾는다

중기 상생협력 연구개발 공모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5일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ICT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까지 중소기업 입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확대 시행중인 협력연구개발사업은 KDN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전력정보통신(ICT) 신기술과 신제품 등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KDN은 협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13년간 37개 중소기업에게 총6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다수의 지식재산권 공동 출원과 신규 사업참여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바 있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기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전력ICT 분야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연구개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협력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에 총 연구개발비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개발기간은 24개월 이내이며, 지원 과제 수는 기업당 1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DN 전자입찰시스템(www.power-ec.com)과 홈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사이트(www.kdn.com/jungso)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DN 관계자는 "중소기업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동반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에너지 해를 위한 1대 1 안내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 만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전력ICT분야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